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면에서 계속)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 원군미풍 열성자들, 공로자, 로력혁신자, 모범군인들, 련사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계양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기를 경건히 우리더러 숭고한 경의를 드리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여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이 연설하였다.

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었다.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조국해방전쟁승리 지휘관상징중대의 입장으로 장엄한 열병식이 시작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의 매 전략적단계마다 진격의 돌파구를 피로써 열여제긴 불멸의 공훈을 굳기마다에 새겨안고 혁명무력의 첫 근위부대, 전설적인 근위사단, 근위련대 상징중대들이 지축을 울리며 련이어 광장에 들어섰다.

영웅조선의 본태를 보여주며 미제의 죄악에 찬 《상승》의 전통을 치욕과 패배의 전통으로 뒤바꾸어놓고 우리 조국의 영원한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놓은 전화의 근위부대들의 위훈을 전하는 상징중대들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포화속을 뚫고 군수물자수송에서 무비의 위훈을 세운 조국해방전쟁시기 철도병상징중대, 포성없는 진구들에서 적들의 침략전쟁기도를 제때에 알아내고 수많은 간첩과괴담해분자들을 적발속청하며 전쟁승리에 특출한 기여를 한 내무성상징중대에 이어 항일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남녘로소가 침략자들과의 결전에 나섰던 불굴의 항전사를 전하는 소년남녀빨찌산상징중대가 붉은기와 소년단기를 나뭇기며 광장을 활보해갔다.

전승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지, 기백이 차넘치는 열병광장으로 전쟁의 철화를 헤쳐온 기계화중대들이 기세차게 전진해갔다.

항일의 혈전지에서 개척되고 항미의 불바다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수령보위의 고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며 수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로만 달음쳐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전진기상을 안고 명예기병중대가 말발굽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당중앙결사옹위에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이 있다는 백승의 철학, 불변의 진리를 웅변하며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중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중대, 호위국중대, 호위사령부중대가 위엄있게 나아갔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를 떨쳐온 무적의 사단, 련대들의 군기를 자랑높이 나뭇기며 전진군단중대들이 멸적의 장검을 비껴든 군단장들의 인솔하에 행진해갔다.

조국의 령해와 평공을 지켜 령사의 갈피갈피에 오만하게 날뛰던 미제침략자들

에게 참패를 안긴 승전화들을 가득채운 해군, 공군중대와 공화국무력의 불가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중대, 특수작전군중대들에게도 미제의 쓰디쓴 패배의 전통을 속명으로 만들어버릴 도도한 기상이 서리발쳤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절대불변의 계급적각오와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무자비한 징벌의지로 심장의 피를 뚫으며 장구한 반미대결전에서 련전승만을 안아온 값높은 위훈이 새겨진 영광의 군기를 추켜들고 기세충천하여 행진해가는 열병중대들에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열병광장으로 수도방어임무를 맡은 군단중대들, 조국의 해안과 국경연선, 후방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선 군단중대들이 굽이쳐갔다.

땅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중대들과 정찰총중대에 이어 반제반미대결전의 맹장들을 키워내는 주체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중대, 나라의 최고급군사지휘관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정대학중대, 인민군대정치일군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정치대학중대가 위풍당당히 진군해갔다.

주체혁명위업의 억년청정함을 담보하는 핵심물간속성의 원종장에서 혁명의 원과즐기,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는 미더운 계승자들의 대오인 혁명학원중대들과 조국방 방방곡곡에 철벽의 진을 치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가는 로농적위군중대가 용기백배하여 발구름을 높이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을 만드는

일련단심에 전승세대의 넋을 만장약하고 위대한 전승사와 그 승리를 지켜온 70년 령사를 700년, 7,000년으로 길이 빛내여갈 신념의 맹세로 격동치는 열병중대들에 손을 높이 드시어 격려해주시었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우리 국가의 억년강대함과 영원한 백전백승을 위하여 용진, 용진 또 용진해나갈 전체 열병대원들의 드높은 맹세의 함성이 경축광장을 진감하였다.

전승철의 환희와 경축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상공을 뒤물리며 인민공군의 장쾌한 열병비행이 시작되었다.

격렬함과 영웅성에 있어서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승전사를 7월의 하늘가에 아로새기며 오각별과 수자 《70》을 형상한 비행중대가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철예한 대결전에서 침략자의 후예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우리 혁명무력의 강대성과 현대성, 대적의지를 보여주며 기계화중대들이 열병진군을 개시하였다.

주력땅크중대와 인민군대의 제1병종인 포병중대들의 철의 흐름이 열병광장에 노도쳤다.

적들과 정면승부를 내야 할 고대하던 시각이 도래한다면 전대미문의 소량전, 최후의 섬멸전으로 대담할 우리 혁명무력의 초강경립장을 세계앞에 선언하며 발사전야의 격동상태에 있는 전술미사일중대와 장거리순항미사일중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

무기중대들이 기세차게 나아갔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적대세력들의 각이한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도발적인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공화국 전략무력의 가장 강력한 핵심주력수단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이끌고 미사일총구 제2붉은기중대가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격정과 환희는 고조를 이루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목제를 끝장내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수 있는 강대한 국가와 인민의 절대적인 힘의 실체, 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인 우리 전략무력의 위상을 체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중대가 영웅발사대차를 선두로 광장주로를 메우며 진군해갔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목가 황홀한 불보라되어 전승철의 밤하늘에 끝없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손을 높이 드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은 위대한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전면적부흥발전을 가속화하며 반제반미성전에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전승신화를 창조해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대정치군사축전으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